

중앙박물관 『려선합벽』 발간

이봄 기자 lbom.kr@khu.ac.kr

우리학교 중앙박물관이 기획 도서 『려선합벽-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를 출판문화원에서 출간했다. 작년 문화체육관광부(2020년 대학박물관진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 I’ 온라인 특별전의 후속 작업이다. 중앙박물관이 당시 공개한 소장품인 『려선합벽』을 재구성한 해당 도서는 유성룡, 김상헌, 최명길, 송시열 등 고려와 조선의 사상가들이 직접 주고받은 서첩의 내용을 담고 있다.

『려선합벽』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유명 문인들의 시문과 간찰(簡札)을 모아놓은 서첩이다. 제목 ‘려선합벽’은 ‘고려와 조선이 서로 조화롭게 짝을 이룬다’는 뜻의 합성어다. 건(乾)과 곤(坤) 두 권의 책에 총 70인의 글이 수록됐으며, 각 인물의 글씨와 함께 글쓴이를 소개하는 간략한 글인 제발(題跋)이 조합된 구성이다. 『려선합벽-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는 『려선합벽』의 이러한 구성을 따랐다. 각 인물의 원문과 제발을 탈초·번역해 제시하고 해당 필자의 생애와 활동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려선합벽』과 같은 서첩류들은 대부분 흘림체가 심해 번역하기 까다로운 초서(草書)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다. 중앙박물관은 오랫동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려선합벽』을 일반 도서로 출판하기 위해 2019년부터 논의를 이어오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박물관 측은 발간사를 통해 “려선합벽은 우리 선인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기 위해 도록으로 출판하지 않고 일반 도서로 출간했다”고 밝혔다.

중앙박물관은 2019년과 2020년(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 II’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시대 유명 문인의 서찰을 담은 『명묵첩(名墨帖)』(총 8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옛사람의 글에서 삶을 엿보다 I’의 후속사업으로 『려선합벽』을 출간했다.

(사진=중앙박물관 제공)

옛 사람의 글에서 엿본 삶 오늘의 공간으로 이끌고파

김 용 은
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사람 사이의 소통을 거리에 상관없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준다. 이메일이나 손 전화기를 이용한 대화는 즉흥성을 무기로 현실감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이 편리한 소통 도구는 무엇인가 허전한 감정을 숨길 수 없다. 화면에서 쉽게 사라져버리는 딱딱한 활자에는 파스한 손길이나 마음이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지털의 속도감

은 출렁거리는 기다림이나 사람들 간의 소통의 오솔길을 광속으로 해체시켜 버린다.

이러한 때 『려선합벽』(건乾·곤坤,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래전 잊혀진 소통의 방식을 더듬어 보게 한다.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선인先人 70명의 친필 시문詩文과 주고받은 편지(간찰簡札)들을 모아 엮은 이 서첩은 흥미로운 내용은 물론 필체에 담긴 개성과 소통의 진정성을 음미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이를 현대의 대중들에게 인문 교양서로 선보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선인들의 글은 대부분 초서草書로 쓰여져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데 공력이 들었다. 더불어 선인들의 삶을 둘러싼 애환을 오늘의 공간으로 이끄는 데는 남다른 숙고가 필요하였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덕형, 유성룡, 이원익, 김상헌, 최명길, 송시열 등은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주고받았을까? 이 서첩에 남겨진 고려 말과 조선시대 명망가 70인의 친필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애환과 절절한 감성

을 느껴볼 수 있고, 주고받은 간찰에서는 정치와 사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지만 녹록하지 않은 삶의 무게를 엿볼 수 있다. 선인들의 글귀와 그 속의 정신이 물질문명의 풍요로운 호사와 편리성에 길들여진 현대인의 삶에 절절하게 녹아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려선합벽』의 제작 연대는 확실히 규명할 수 없으나 근·현대에 이르러 지금의 모습으로 꾸며졌음은 분명하다. ‘려선麗鮮’은 고려와 조선을 일컫는 용어이며 ‘합벽합璧’은 『한서漢書』, 『율령지律歷志』에 보이는데, “해와 달은 마치 옥을 합친 것 같고 오성은 꿰어놓은 구슬과 같다.(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고 하여 절후가 잘 맞아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는 의미이다.

『려선합벽』은 14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필적을 모아 책을 구성했지만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서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다. 乾책에 38인, 坤책에 32인, 도합 70인의 필적이 수록돼 있다. 배극렴(1325~1392), 이집(1327~1387), 조준(1346~1405), 이숭인(1347~1392) 등 여말선초에 활

동했던 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 조선시대의 인물이다.

『려선합벽』에 수집된 글들은 시문과 간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시문은 총 27명이 적었는데, 그 유형은 4언, 5언, 7언(절구와 율시, 기타) 등이다. 간찰은 44명이며, 그리고 간찰에 시가 혼합되어 작성된 경우가 1편이 있다. 각 필적의 배열순서는 다소 오차는 있으나 대체로 시대 순서를 고려한 듯하다. 44명이 작성한 편지글의 내용은 선물(시문 및 글씨, 부채, 조복, 요대, 달력, 먹, 약재, 도서, 생선과 술, 들깨, 꿩 등)에 대한 감사 서신 이 총 17편으로 제일 많고, 서신(문상)에 대한 감사 답신 및 안부를 묻는 서신이 12편, 개인적 요청(도서, 도서 구매, 글씨)은 6편, 예에 대한 질의 3편, 청탁(노비처리, 관직, 상소문 열람 등) 4편, 기타(청탁 관련) 2편 등이다.

전통사회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신분에 따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 선인들이 주고받은 시문과 편지글을 모아 소장하는 일 역시 상당히 한정된 사람들의 호사스러운 취미이자 선망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산물인 『려선합벽』의 서첩을 유물 사진이 돋보이는 도록이 아닌 인문 도서로 꾸민 것은 발간사에 밝혔듯이 ‘선인들의 의식과 문학적 상상력, 붓 끝으로 흐르는 힘을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